

##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업체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정명희 · 이규건\* · 신정화\*\*\*

서정대학 섬유패션디자인과 교수 · 서정대학 인터넷정보과 교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Analysis on the Status of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in Northern Region of GyeongGi-Do

Myung-Hee Chung · Kyu-Keon Lee\* · Jeoung-Hwa Shin\*\*\*

Prof.,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Seojeong University

Prof., Dept. of Internet & Information, Seojeong University\*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Environment & Metabolomics Research Team\*\*\*

(2011. 5. 3. 접수; 2011. 5. 30. 수정; 2011. 6. 3. 채택)

#### Abstract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43 companies related to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in the northern region in Gyeonggi-do and the questionnaires from 126 companies were finally analyzed to get the statistic data. The questionnaire includes 19 question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May 2010.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was the supply of manpower in the field. For the solution against the insufficiency of manpower, employment of foreigners showed the highest ratio, 47.4%. For the reasons why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as increased, the insufficiency of the Korean workers showed the highest point, 62.9%. For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regional industries, 62.3% answered that the textile industry in the northern region in Gyeonggi-do would be very prospective as the future industry. There was a number of respondents who agreed that high-tech textile industry including knitting could be the industry creating the new highly added valu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he textile industry contributed on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oos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helping the creating the jobs and dealing with the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Accordingly, it was concluded that the perspective on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was positive.

**Key Words:** Northern region of gyeonggi-do(경기 북부지역),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섬유 패션업체), Man power(인력), Analysis on the status(실태 분석)

#### I. 서론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60~80년대 국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고용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도, 동아시아 등 개도국의 중저가 시장점유율의 증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고급브랜드 시장 독점, 미국, 일본 등의 산업용 섬유시장 선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내업계의 입지가 축소되는 과도기를 거쳐, 구조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섬유산업은 1996~2007년 동안 누적수치 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수출효자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2008,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이러한 섬유산업발전에 중심적인 집산지로서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경기북부지역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섬유산업 전 분야에 걸쳐 업체수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임과 동시에 서울에 인접한 섬유의 최적 생산지로서 양포동(양주, 포천, 동두천)을 중심으로 니트와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가 약 2,600여개(2007, 통계청, 1인 이상, 봉제의복 제외) 산재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생산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국내 니트 생산부분은 환편을 중심으로 약 90% 정도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기능성을 요구하는 골프, 등산복 등 스포츠, 레저웨어의 이너웨어에서 아웃웨어를 비롯한 고급니트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니트 생산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고부가가치 니트생산거점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전문화, 분업화, 집적화로 원사입고에서 완제품까지 1주일 이내의 단납기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으로서 향후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2009,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이러한 전망에 반해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 중소기업으로 주문형 생산구조인 OEM형태이며, 과다경쟁 및 자생적 집산화 등에 따른 결속력 부족, 업종별 특성/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연계 스트림간의 접근성이 복잡하고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의 곤란함 등으로 환경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임금, 근무여건 열악 등의 원인으로 국내 구직자의 3D직종 기피 현상이 유발되어 인력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2009, 김숙래 외).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고 낙후된 경기북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을 최고의 섬유패션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적,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료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이 섬유패션산업의 집산지로서 국내 및 세계 섬유패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섬유패션업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근무인원 5인 이상의 섬유패션관련업체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업체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6개의 섬유관련 산업단지조합(양주 검준, 포천 양문 및 신평, 동두천 염색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환편조합, 경편조합)에 소속된 업체를 중심으로 랜덤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실시한 설문지 중 응답의 누락이 많고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6개 업체의 설문지를 통계자료로서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1기업 1설문으로 2010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관련업체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1차적인 조사로서,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를 간부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업체의 기본사항 4항목, 산업체의 현안 및 요구사

항 7항목,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항목, 지역산업으로서의 전망에 관한 사항 4항목으로 총 19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답문 형식의 설문은 복수응답을 적용하였으며, 답문 형식이 아닌 항목은 ‘매우 그렇다’를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5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엑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기본사항

섬유패션업체에 관한 기본사항으로는 근무총인원, 현재 직위, 종사기간, 섬유패션산업 종사에 대한 긍지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126개 업체 중, 근무총인원이 19명 미만인 업체가 82업체(65.1%)로 가장 많았으며, 50명 이상인 업체도 16업체(12.7%)가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위는 100% 전원 간부 이상이었으며, 그 중 업체대표가 64명(50.8%)이었다. 섬유패션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107명(85.0%)이었으며, 그 중 20년 이상 종사자는 48명(38.1%)이었다. 섬유패션산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긍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 이상

의 응답이 85명(66.5%)으로 조사되었다.

#### 2. 현안 및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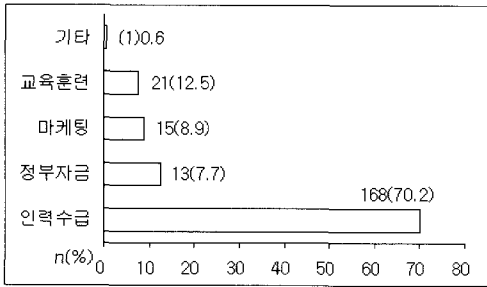
섬유패션업체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인력수급이 70.2%로 현저하게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자금(12.5%), 마케팅(8.9%), 교육훈련(7.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면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정부지원이라는 응답률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학공동대응(20.1%), 자체해결(12.8%), 대책 없음(11.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교육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면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정부지원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학공동대응(28.2%), 자체해결(11.5%), 대책 없음(7.5%)의 순으로 인력수급의 대책과 동일한 경향의 응답을 보였다(그림 3).

직원 총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직접설문에는 89업체가 응답하였는데, 그 중 93.3%인 83업체가 현장 생산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염색기술 3업체, 총무 2업체, 기계조작 1업체로 생산직의 인력수급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족한 인력의 대응책을 묻는 설문에서는 외국인 활용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용직/아르바이트(19.8%), 근무시간 연장(17.7%),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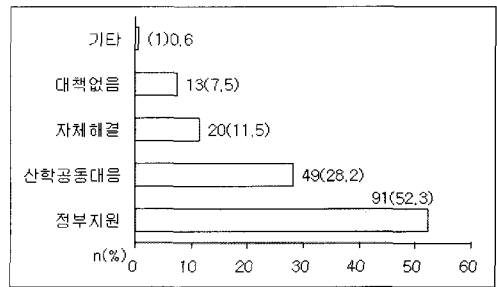
<표 1> 기본 사항

단위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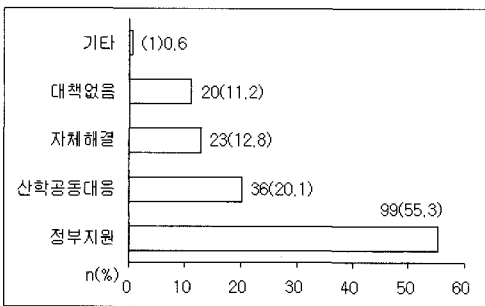
직원 총인원					
10명 미만	10-19명	20-29명	30-39명	40-49명	50명 이상
35(27.8)	47(37.3)	17(13.5)	5(4.0)	6(4.8)	16(12.7)
직위					
대표	임원	관리간부	생산간부	기타	
64(50.8)	21(16.7)	32(25.4)	9(7.1)	0(0.0)	
종사기간					
20년 이상	16-20년	11-15년	6-10년	5년 이하	
48(38.1)	22(17.5)	37(29.4)	8(6.3)	11(8.7)	
섬유패션산업 종사 긍지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6(28.6)	49(38.9)	25(19.8)	7(5.6)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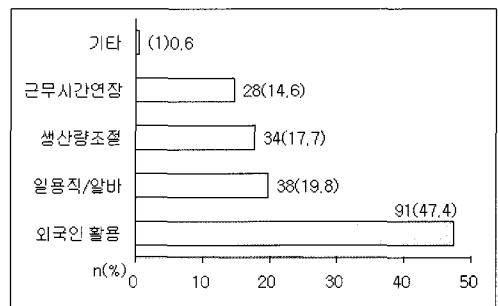
<그림 1> 현안



<그림 3> 교육훈련의 적절한 대책



<그림 2> 인력수급의 적절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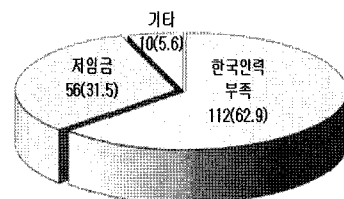


<그림 4> 부족한 인력 대응책

조절(14.6%)의 순이었다(그림 4). 한국인 노동자 또는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리고 있느냐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70.6%, ‘그렇다’가 15.9%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인 인력부족이 62.9%로 현저히 높았으며, 저임금의 이유도 31.5%로 조사되었다(그림 5).

이상의 설문 결과, 섬유패션업체의 가장 큰 현안은 인력수급으로 정부지원에 의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인 인력 부족으로 많은 업체에서 외국인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극복하고자한다는 것은 3D업종 기피현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근무시간 연장 등의 방안책은 근무조건으로 인한 불만을 초래하여 3D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일용직/아르바이트의 활용은 전문성 결여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섬유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산학공동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이유 n(%)

<표 2> 외국인 인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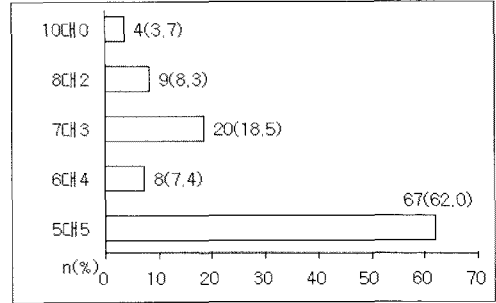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9(70.6)	20(15.9)	5(4.0)	10(7.9)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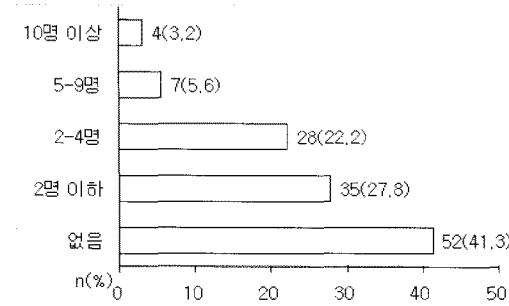
3. 직원 교육현황

직원의 교육훈련(재직자 향상/신규자 양성)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9.8%, ‘그렇다’가 28.5%로 직원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표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2명 이하의 업체가 27.8%, 없는 업체도 41.3%나 되었다(그림 6). 이는 섬유패션업체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서, 직원의 향상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관련 전문교육기관은 한국섬유소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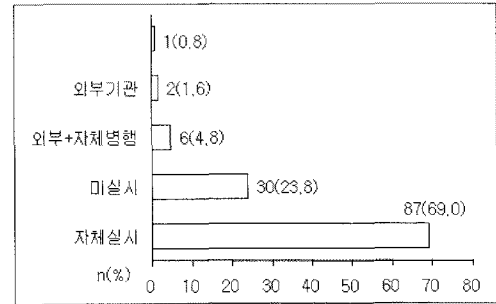
으며,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23.8%나 되어 교육여건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그림 8).



<그림 7> 향상과 양성교육의 적정 비율



<그림 6> 전문대학 졸업 이상 직원 수



<그림 8> 교육훈련 방법

소와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업체의 직원 향상 교육훈련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대부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관련 교육기관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확충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교육훈련과정 중 재직자 향상교육 대 신규자 양성교육의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5:5의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3 18.5%, 8:2 8.3%, 6:4 7.4%, 10:0 3.7%로 재직자 향상교육을 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현재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실시가 69.0%로 가장 많았

4. 지역산업으로서의 전망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세계 고급니트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망이 밝은지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7.8%, ‘그렇다’가 35.7%로 미래산업으로의 전망을 밝게 보았다(표 4). 니트 등 첨단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25.4%, ‘그렇다’가 33.3%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5). 섬유산업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31.7%, ‘그렇

<표 3> 직원 교육의 필요성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9(39.8)	35(28.5)	33(26.8)	6(4.9)	0(0.0)

다'가 41.3%로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표 6). 또한, 섬유산업이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27.8%, '그렇다'가 31.7%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7).

본 연구 결과, 인력수급의 심각성과 미흡한 교육현황 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업계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섬유산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섬유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약 63%의 낮은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섬유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인식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청년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섬유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박태수, 2008). 현장 인력 부족현상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인력 수요의 절대 부족 현황 등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섬유패션산업은 무한 성장산업이며 정보화와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산업(조성호, 2002)이다. 그러한 성장 잠재력을 인지하

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업계의 종사자들이기에 인력수급난이라는 가장 절실한 현안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섬유패션업체 자체에서도 근무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난 해소방안, 현장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향상과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IV. 결론 및 제언

경기북부지역은 양주와 포천을 중심으로 섬유패션관련업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서울에 인접한 최적의 섬유소재생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최고의 섬유패션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적,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

<표 4> 미래산업으로의 전망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5(27.8)	45(35.7)	34(27.0)	11(9.0)	1(0.8)

<표 5> 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의 성장성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2(25.4)	42(33.3)	40(31.7)	11(8.9)	1(0.8)

<표 6>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의 기여도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0(31.7)	52(41.3)	26(20.6)	7(5.7)	1(0.8)

<표 7>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의 기여도

단위 : 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5(27.8)	40(31.7)	27(21.4)	20(15.9)	4(3.2)

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이 섬유패션산업의 집산지로서 국내 및 세계 섬유패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섬유패션업체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설문대상자의 직위는 100% 전원 간부 이상이었으며, 그 중 업체대표도 64명(50.8%)이었다. 섬유패션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107명(85.0%)이었으며, 그 중 20년 이상 종사자는 48명(38.1%)이었다. 섬유패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66.5%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으로 섬유패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섬유패션업체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인력수급이 70.2%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수급의 적절한 대책으로는 정부지원이 5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학공동대응(20.1%), 자체해결(12.8%), 대책 없음(11.2%)의 순이었다. 직원 충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93.3%가 생산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한 인력의 대응책으로는 외국인 인력 활용이 47.4%로 가장 높았다. 한국인 노동자 또는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력 활용을 늘리고 있느냐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70.4%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인력 부족이 62.9%로 월등히 높았으며, 저임금 때문이라는 응답도 31.5%로 조사되었다.

셋째, 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68.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교육훈련과정은 신규자 양성교육보다 재직자 향상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육훈련으로는 자체실시가 69.0%,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23.8%로 교육여건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직원이 2명 이하의 업체가 27.8%, 없는 업체도 41.3%나 되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넷째,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미래산업으로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응답이 63.5%이었고, 니

트 등 첨단 섬유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창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응답도 58.7%로 높게 나타났다. 섬유산업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의견 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여 섬유패션산업의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섬유업체의 가장 큰 현안은 인력수급으로 현장 기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업체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3D직종 기피현상과 더불어 고질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미흡이 원인이자 사료된다. 인력수급문제는 해외 저임금의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섬유패션산업의 성숙화 과정 진행, 정부의 섬유산업 기반구축에의 주력, 중장기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부재 등은 기능 및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기북부소재 직업전문 교육기관의 확충, 종합교육 및 선진형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콘텐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업계에 종사자들은 가장 어려운 인력수급난 속에서도 섬유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잃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화를 통해 섬유산업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섬유패션발전방안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경기북부지역의 섬유패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숙래, 김기태. (2009).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2, 1-42.
- 김숙래, 용광중, 김종훈, 이인열, 우종형, 박홍원, 정구. (2009).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방안. *섬유기술과 산업*, 13(1), 64-75.
- 박상주, 김희삼, 김미선. (2000). 섬유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 287-299.
- 박태수. (2008).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방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건섭. (2006). 섬유패션산업의 인력수요예측. ARIMA Model 적용. *한국행정논문집*, 18(3), 723-742.
- 유혜경. (1997). 통계자료에 의한 섬유산업의 이해. *한국비즈니스학회*, 1(1), 43-52.
- 유화숙, 박광희. (2004). 섬유산업 종사자의 섬유산업에 대한 태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8(7), 916-926.
- 조상호. (2002). 섬유패션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생활과학연구*, 20, 237-244.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2008). *경기북부 섬유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경기도:한국섬유소재연구소.
- 통계청.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검색일 2011. 5. 1, 자료출처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